

배포일시	2021. 2. 25.(목) 14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유용규 전문관 박찬귀
		전화번호	042-363-3527

## 충남권 주말까지 건조, 산불 주의

- 충남서해안 강한 바람 주의 -

- 이번 주말까지 건조, 강한 바람
  - 강한 바람에 불씨 확산 및 큰 화재 주의
  - 야외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주의



[ 2월 26~28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]

-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은 오늘(25일, 목) 밤부터 28일(일)까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기온이 오르고, 습도가 낮아지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피해 대비에 대한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정보를 발표하였다.
- 최근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앞으로 바람까지 강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## [ 기압계 전망 ]

- 28일(일)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저기압, 북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동풍의 영향을 자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남북으로 서로 다른 기압계가 배치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겠고, 이로 인해 형성된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충청권은 기온이 오르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분석했다.
- 또한,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는 공기가 점차 건조해져 충청권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했다.

## [ 건조 전망 ]

- 25일(목) 1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의 건조특보는 해제하였으나 26일(금)부터 28일(일)까지 건조한 동풍이 불면서 다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했다.
-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26일 오후 부터는 동풍이 더욱 강해지며 대기가 건조해져 주말까지 충남권에 잦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.
- 이에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을 자제하고, 논·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, 허용된 지역 외 취사 자제 등 산불과 각종 화재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## [ 강풍 전망 ]

- (강풍) 점차 동풍이 강해짐에 따라 26일(금)부터 28일(일)까지 충남서해안은 시속 30~45km(초속 8~12m)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,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20~30km(초속 5~9m)로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.
-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, 조립식 지붕, 신호등 등 시설물과 강풍에 날리는 낙하물, 간판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강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